

일시 | 2023년 7월 25일 오후 3시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토론회

주최 |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토지+자유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국민주권당(준),  
국회의원 강득구·강민정·김두관·김민석·김용민·김의겸·  
민형배·안민석·양이원영·윤미향·임종성·최강욱

YouTube 생중계 **촛불행동TV, 안진걸TV, 오마이tv, 시민언론 더탐사**

사회 | 권오혁 촛불행동

개회발언 |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강득구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발표 | 1. 서울-양평 고속도로 15년 숙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정동균 전 양평군수

2.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는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3. 원희룡 장관의 거짓말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위원회 위원장

4.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성과

박진영 균형발전위원회 전 국장

지정 토론 | 1. 불법천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계획

임종성 의원

2. 서울시민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세은 경제평론가·전 청와대 부대변인

3. 고속도로 게이트는 국정농단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4. 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은 국회의 임무

김성진 더민주혁신회의 미디어소통단장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토론회

일시 : 2023년 7월 25일 오후 3시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주최 :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토지+자유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국민주권당(준),  
국회의원 강득구·강민정·김두관·김민석·김용민·김의겸·민형배·  
안민석·양이원영·윤미향·임종성·최강욱

생중계 : 촛불행동tv, 안전길tv, 오마이tv, 시민언론 더탐사

## 1. 취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를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 양평군, 보수언론들이 연일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국민과 양평군민들을 현혹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2. 순서

사회 - 촛불행동 권오혁 공동대표

개회발언 -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 강득구 의원, 김두관 의원 (자료집 2쪽)

발표 1 - 정동균 전 양평군수 : 서울-양평 고속도로 15년 숙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자료집 7쪽)

발표 2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는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나? (자료집 10쪽)

발표 3 - 민주당 여주양평위원회 최재관 위원장 : 원희룡 장관의 거짓말 (자료집 18쪽)

발표 4 - 박진영 균형발전위원회 전 국장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성과

지정 토론 1 - 임종성 의원 : 불법천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계획

지정 토론 2 - 임세은 경제평론가(전 청와대 부대변인) : 서울시민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료집 29쪽)

지정 토론 3 -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 : 고속도로 게이트는 국정농단

지정 토론 4 - 김성진(더민주혁신회의 미디어소통단장) : 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은 국회의 임무

질의응답

국정조사-특검 도입 촉구문 발표 (자료집 31쪽)

## [ 개회발언 1 -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 ]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자리를 갖게 되어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공적 권한을 오로지 자기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탈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공적 재산도 그렇게 도적질합니다. 검찰총장 당시 쓴 이른바 특활비 내역은 백지 영수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사법부는 물론이요,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고속도로 국책사업에까지 검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자기들과 자기 일가의 돈벼락을 위해 종점을 조작한 범죄 의혹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들킬 줄 몰라 꽤나 당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상에 따라 단호하게 징치(懲治)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태생부터 변조, 위조, 조작, 뒤집어씌우기, 진실 감추기, 정적과 자기들 반대하는 사람들 죄다 때려잡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국민의 재산을 강도질하기 위한 수작이었다는 것을 이제 누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장모라는 사람이 저지른 희대의 조작질, 사기는 결국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부장 비리와 부패, 그 정체가 역순으로 드러나는 예고편입니다. 본판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응징과 법적 처벌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서른두 살에 경기 암행어사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가 본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다산이 이 당시 쓴 시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냇가 허물어진 집, 뚝배기처럼 누웠는데 / 뚫린 벽에 별빛이 비쳐든다 / 집 안에 있는 물건 몹시도 쓸쓸하니 / 모두 팔아도 칠팔 훈이 안 되겠네 / 늦수저는 지난번에 이장에게 빼앗기고 / 무쇠술은 엇그제 옆집 부자가 앓아갔구나.”

다산은 또 이런 기록도 남겨 놓았습니다. 아무개 고위 관료가 “환국을 제멋대로 사용(私用)으로 돌렸고 전답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로채 백성들이 곤경에 처하게 해 그 악명이 끝이 없다. 탐욕 또한 끝이 없고 아비하기가 극심하기조차 하다. 임

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짐꾸러미는 너무 많아 흙을 실어 나르는 배가 이걸 싣고 가느라 제 본래 구실을 못 했다. 고을 관리의 한탄과 백성들의 원망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사람을 엄중히 징계하지 않는다면, 백성을 보호할 수 없다.”

해서 그가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시한 것은 “청렴(淸廉)” 이었습니다.

“廉者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 청렴이란 목민관의 근본되는 임무이며, 만 가지 착함의 원천이고 모든 덕의 뿌리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와는 달리, 썩고 썩은 권력을 거침없이 도려내야 국민들의 삶이 평안해진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일가와 일당, 이 자들은 오로지 공권력과 공적 재산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어 배를 불리는 탐욕에 미쳐 있습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 주저 없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부패한 권력을 몰아내야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를 위한 귀한 자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 개회발언 2 - 강득구 의원 ]

안녕하십니까? 경기 안양만안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타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사업의 중심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자 윤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질문도 딱 한가지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중심의 위치를 바꾸었는가’입니다. 질문이 간단함에도 정부여당의 답변은 장황합니다. 문제의 본질과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국정농단이자, 행정농단, 국민농단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권력으로 사익을 추구한 국정농단입니다. 오랫동안 추진된 사업을 국가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까지 백지화시킨 행정농단입니다. 더불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국민농단입니다.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과 비슷합니다.

처음 관련 고속도로 관련 제보를 받았을 때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고속도로 게이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난 대선기간 동안 제가 제기한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속의 인물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양평이라는 공간적 배경도, 거대한 권력의 작동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점마저 똑같습니다.

진상규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계신 사건에 대해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야말로 주권자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진상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 나름의 방법으로 진실에 다가

서기 위해 노력하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7월 25일(화), 국회의원 강득구**

### [ 개회발언 3 - 김두관 의원 ]

정치권력의 국가사업을 통한 축제, 이것은 오래도록 보수정권 부패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권력의 타락과 함께 밝혀지는 추악한 면모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는 복잡한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 처가가 재산을 형성한 방식을 미루어 보면, 어쩌면 지극히 예측가능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안이 비단 여기 뿐일까 하는 불길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대통령 인수위 시기부터 차곡차곡 진행되었습니다. 양평군과 국토부는 마치 이 사안을 기밀 프로젝트 다루듯 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을 뿐, 누군가의 손이 작동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민했는지 2조짜리 국책사업이 지역의 담당 공무원도 모른채 변경되었습니다. 국가 고속도로 노선을 엇가락처럼 휘게 만들어 일가가 축제를 하려는 시도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국회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대담한 시도에 아연할 따름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진상규명TF는 자료를 통해 사안의 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사안을 덮기 위해 TF까지 구성해 논리조작과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부분적인 자료 공개로 사태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감추고 있는 모든 공적인 기록물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익을 보는 대통령 일가와 대통령실, 국토부와 양평군의 누가 어떤 연결고리로 이 사태를 진행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번 게이트는 국민 60% 이상이 국정조사를 원할 정도로 권력형 부패 혐의가 짙은 사안입니다. 이미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윤석열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하고, 사태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모든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노선을 원안으로 되돌려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사태를 어지럽혀 눈속임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원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한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 [ 발표 1 - 정동균 전 양평군수 : 서울-양평 고속도로 15년 숙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

안녕하십니까? 전 양평 군수 정동균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조용한 우리 고장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안타까운 일로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예타를 성사시킨 전임 군수이자 나고 자란 고향의 주민으로서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속히 의혹이 해소되고 진상이 규명되어 예타 통과로 온 군민이 환호했던 고속도로 건설이 재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양평의 15년 숙원사업에 대한 과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는 15년전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 당시 양평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5년 전인 2008년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무르익던 시기입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이후로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는 마치 통일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듯 통일된 조국을 생각하며 이런저런 준비 과정과 그 여파를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그 무렵 많은 정치인들은 통일된 대한민국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당시 민선 4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약이었고요. 특히나 김문수 전 지사는 경기도의 규제 철폐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도는 전략적인 요충지로 파주·개성·해주·신의주를 잇는 경의축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오를 것이다.” “넓은 수도권 규제라는 울타리를 과감하게 허물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런 말은 당시 사회 분위기와 어우러져 중첩규제로 고통받던 우리 양평에게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관점을 바꿔 그 당시 양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양평은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너도나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내걸 정도입니다.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은 관계로 사업성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당시 김문수 도지사의 공약은 양평 주민에게 큰 기대감을 주었지만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자고속도로 이야기가 나오다가도 금방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에게는 큰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2017년 1월에 고시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입니다. 그 후 제가 민선7기 양평 군수로 제직하던 2018년 1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이 발표되면서 기회는 현실로 다가오는 듯 보였습니다. 2019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되었고, 언론에도 잘 소개되었듯이 우리는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천신만고 끝에 통과했습니다. 12만 양평 군민과 함께했던 가슴벅찬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타당성평가조사가 착수되었고, 저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하면서 사업추진을 다음 군수에게 인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달 전 노선이 변경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속도로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과연 양평에 IC를 만들면서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였습니다. 고속도로가 양평군민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평에 IC를 신설하면서 예타를 통과하는 일은 더 어려운 하늘의 별따기였고, IC는 차후 다양한 방법으로도 추진 가능성이 있었기에 우선 예타를 통과하는 일에 매진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양평군에서 말하고 있는 ‘강하 IC가 포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는 IC 신설로 군민을 현혹하고 이간질하는 교묘한 술책이자 군민을 선동하고 본질을 가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15년 역사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노력이 그 흐름을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15년 동안 생각하고 노력한 역사의 흐름이 사적 욕망에 좌초되고 있는 것입니다. 15년을 노력하고 고민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저들은 모욕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발표 2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는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나? ]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 사건을 윤석열 정권의 초대형 권력형 비리로 보고 있으며,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 윤석열 김건희 일가 구속도로 게이트'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4당과 시민사회의 총력 대응을 당부·호소드립니다.

1. 이렇게 시작되었다 : 2023년 5월 양평군민들의 잇따른 제보와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의 첫 보도(2023.5.22.)

###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尹 처가 땅 지역으로 변경된 이유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양서면에서 尹 처가 땅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  
'<김선교 자백영상> 제보자, 종점 변경에 해당 지역구를 둔 국회 국토위 위원이었던 김선교 연관 의혹 제기',  
'국토부, 지난 8일 종점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  
'관할 양평군청 "국토부 공문 없었다" 홈페이지에 초안 공고 안함..강상면사무소도 해당 초안 비치 하지 않아'  
'김선교 "(의혹) 사실과 전혀 다르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5/22 [17:09]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회계책임자의 1천만 원 벌금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이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을 윤석열 대통령 장모 땅이 위치한 지역으로 변경한 것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지난해 3월30일 국민의힘 김덕수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국민의힘 김덕수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상 캡처

양평군 전 공무원이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는 “최근 서울(송파)-양평간 고속도로 관련하여 종점이 양서면(국수리)에서 강상면(병산리)으로 변경되었다”면서 “윤석열 장모(최은순)의 땅이 강상면(병산리)에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최은순 땅 위치한 강상면으로 변경이 김선교 입김?**

해당 제보자는 이런 의혹의 중심에는 전 양평 구청장이자 국회의원시절 여주·양평을 지역구로 활동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전 의원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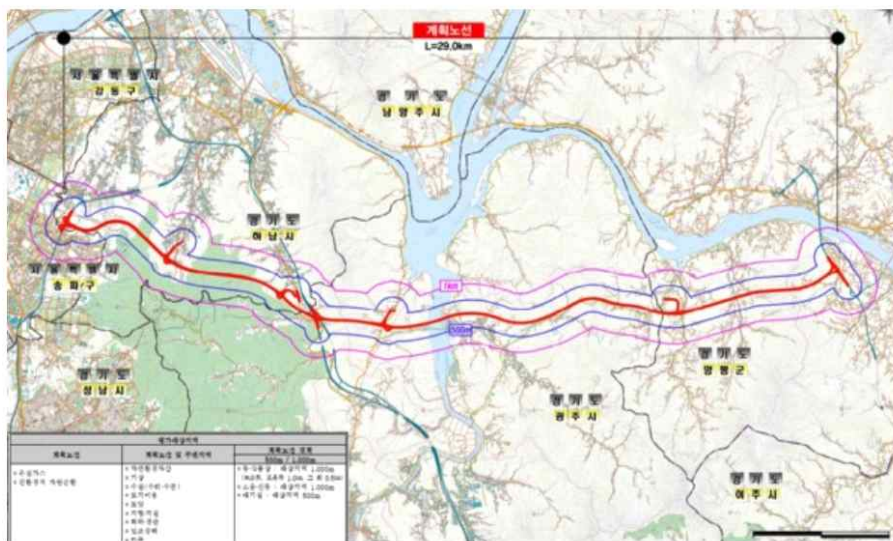
그는 이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종점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웬만해서는 변경되기가 (어렵고) 지역에서 여론도 그렇고 (변경이) 쉽지가 않다”고 강조하며 ▲공흥지구 특혜 ▲수사결과 사문서위조 (값싼티켓) ▲김선교는 무죄 ▲내년총선출마 ▲고속도로 종점변경 ▲김선교 국토위 위원 이라는 단어들을 나열해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현 정권에 비호를 받는 김 전 의원이 관여 돼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실제로 윤 대통령 처가 일가는 경기 양평군 병산리에 조상 묘와 납골당이 위치한 선산 약 7500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대선 당시 해당 토지 중 장모 최은순 씨 동생 측이 매입한 토지를 독단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김건희 씨가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사실상 모든 토지를 최은순 직계 일가가 실질적 권리를 소유하는 것 아니냐’며 윤 대통령 처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관할 기관 석연찮은 정황?**

아울러 이번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관할 양평 군청과 면사무소 등에서 석연치 않는 정황도 포착됐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된 종점 관련 초안 © 국토교통부

###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관할 기관 석연찮은 정황?

아울러 이번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관할 양평 군청과 면사무소 등에서 석연치 않는 정황도 포착됐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로 변경된 종점 관련 초안 © 국토교통부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공개하고 오는 22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오는 2031년까지 건설될 서울-양평 고속국도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기존 26.8km보다 2.2km 늘어난 총 29km가 된다.

그런데 지역 언론인 '양평시민의소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종점이 변경된 내용의 초안 공개와 함께 시행되어야 할 관할 양평 군청 홈페이지 공고와 종점이 들어설 강상면의 면사무소 등에 초안의 비치기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

매체는 “군청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다”면서 “군 담당자는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8일 공고가 난 사실도 주민들의 전화를 받고 알게 돼 당황스러웠으며, 국토부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의견을 받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주민의견서를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해당 주민센터 1개소 이상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강상면에 확인한 결과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나 주민의견서 등이 비치돼 있지 않았으며 면사무소 관계자에 물어보니 국토부에서 공문을 받으며 변경되지 몰랐다고 대답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매체는 “공고기간도 애초 계획보다 최소 9일 이상 단축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초안 공고 기간은 20일 이상 40일 이내 공람이지만 실제 공개기간은 8일에서 22일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면 11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국토부는 초안을 군청 홈페이지나 면사무소 비치하지 않아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우니 기간 연장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계획 없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양평 공흥지구 이익 배당금에 관한 민사소송 판결문(2018, 서울고등법원)**

**나. 이 사건 투자약정의 체결**

- 1) 소외 회사는 2006. 12. 6. 양평군 D 일아 9,421㎡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다.
- 2) 피고의 딸인 E가 2009년 5월경 원고 청산인 F의 아들인 G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2009. 7.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800,000,000원을 투자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3) 원고는 2009. 7. 15. 피고 명의의 계좌로 8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다시 입금한 후 2011. 12. 7. 위 돈으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 중 경기도 양평군 H 일아 2,585㎡(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하였다.

▲ 양평공흥지구 이익 배당금에 관한 민사소송 판결문(2018, 서울고등법원)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김선교 전 의원 입장은?**

김선교 전 의원은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최은순 여사 시댁이 강성면 병산리다 .거기는 고속도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상관이 없는 걸 떠들어 대는 거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내년 총선 출마 관련해서 그는 “총선 나간다”며 “내가 당연히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나가야지. 벌금형을 받은 것도 아니고”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에 위헌 신청했다”면서 “나도 모르는 걸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한 걸 내가 알 수 없다. 억울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김 전 의원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지난해 ‘윤석열 처가 양평 부지 특혜’ 의혹이 있는 김 전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전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을 실토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른바 ‘김선교 자백영상’을 제보했었다고도 밝히기도 했다.

## 2. 원희룡 장관, 국토부, 국힘당, 용산 대통령실, 백원국 국토부2차관,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총체적 거짓말 :

양평군 강상면에 윤석열 부부 땅, 김건희최은순 일가 땅이 있는 것을 2023년 6.29 일 김두관 의원이 문제제기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새빨간 거짓말만 봐도 이번 사건은 ‘고속도로 게이트 비리’ 가 명백합니다.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의 대지주인(차명보유 의혹 토지까지 포함하면 최소 31필지, 1만2천명이 넘는 땅을 보유) 윤석열김건희 부부 및 김건희최은순 일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사건이 명백한 비리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 1) 2022년 10.6일 용산대통령실 공식 브리핑 자료
- 2) 2022년 10.6일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국회 국정감사 공식 질의
- 3) 2022년 5월의 양평시민의소리, 서울의소리 등 인터넷언론 보도 시작(5.22일 서울의소리 보도를 보면, 김선교 의원이 6월 29일 전에도 인지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음)
- 4)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재산신고 서류와 언론보도
- 5) 2022년 8월 대통령선거 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재산신고 서류와 언론보도  
※ 2022년 8.26일 이데일리 ‘윤대통령 재산 76.4억...대부분 김건희 여사 명의’ 라는 제목의 기사 중 : (중략) 토지의 경우 모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의 임야, 창고용지, 도로다(하략)
- 6) 2022년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윤석열 부부 재산신고 서류와 언론보도
- 7) 아래 용산대통령실 2022년 10.6일 브리핑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는, 2021년 대선 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김건희최은순 일가의 땅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과 언론보도
- 8)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간부 시절의 재산신고 서류와 언론보도

## 3. 양평 공흥지구 총체적 개발 비리, 특혜비리 무혐의 처분 과정 역시 중대한 탄핵사유입니다 :

사업을 주도한 것은 김건희-최은순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장모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너무나 이례적으로 초청을 받았고, 또 수사 도중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교체되었으며, 결국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윤석열 정권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영전하기도 했습니다.



※ 별첨 :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결과(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서(2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그 일가가 연루된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및 경기도 양평군 일대 부동산 투기 범죄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들에 대한 이의신청] (2023년 7월 10일(월) 온라인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서 제출함. 더 자세한 내용과 자료는 향후 검찰에 제출 예정임)

1. 사건번호 : 2021-007542(고발장 접수일시 2021.12.8.)

죄명 :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이의신청인 : 안진걸 이 사건 고발인(민생경제연구소장/010-2279-4251/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2-6 아크로폴리스오피스텔 604호)

피이의신청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은순 장모, 김선교 전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사건 당시 3선 양평군수) 등

2. 사건번호 : 2022-000485(고발장 접수일시 2022.1.27.)

죄명 : 농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조세범처벌법,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이의신청인 : 안진걸 이 사건 고발인(민생경제연구소장/010-2279-4251/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2-6 아크로폴리스오피스텔 604호)

피이의신청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은순 장모, 김선교 전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사건 당시 3선 양평군수) 등

<이의신청 사유>

1. 사건번호 : 2021-007542(고발장 접수일시 2021.12.8.)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1) 최근 전국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급변경된 희대의 특혜비리 의혹 사건’ 으로 뜨겁고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윤석열김건희부부땅고속도로게이트’ 나 ‘김건희일가땅고속도로게이트’ 라고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고속도로 특혜 비리 사건이 발각되자, 윤석열김건희 정권과 원희룡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이 엄청난 불법 특혜 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비호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이 사건이 매우 추악한 권력형 비리라는 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와 국민이 이 극악무도한 정권의 비열한 행태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게이트는 윤석열김건희 정권 본부장가(본인·부인·장모·가족전

체) 비리의 핵심 사건이기에 더더욱 우리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막대한 개발차익을 남기고도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만들어내는 권력형 사기 및 특혜 사건을 일으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서 결국 이 사건 피고발인 이자 핵심 피의자들은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김선교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고발하지도 않은 김진우(윤석열 대통령 처남)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또 다른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중대한 탄핵 및 엄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에서 각종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책임자를 대통령 취임식에 부르고, 수사 도중에 경기남부경찰청장을 교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것이 지금 이 사건의 일시적 불송치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사건은 훗날 진실이 다 드러나고 이 사건 피의자들은 엄벌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3) 김건희최은순 일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여주지청장 시절 전후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부같은 친분을 강조하고 있는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3선 양평군수 시절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또 개발 이후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특혜와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건 주요 피의자, 관련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되고 김건희 여사의 오빠만, 그리고 힘없는 하급 공무원들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는지 고발인들과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두 번의 발언을 통해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과 간부같은 사이였고 장모(최은순)관련 일의 허가를 내가 다 잘해주어서 나만 보면 고맙고 미안해한다는 사실상의 특수 관계나 공범 관계를 자백했다고 볼 수 있는 영상까지 버젓이 남아 있음에도, 또 이 공흥지구 개발과 가족회사를 최은순-김건희가 주도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무혐의한 것은 어떤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4) 이에 고발인은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반드시 신속하고, 철저히 재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2. 사건번호 : 2022-000485(고발장 접수일시 2022.1.27.) 이의신청 사유

1) 경기도 양평 일대에는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땅과 김건희최은순 일가의 땅이 최소 확인된 것만 29필지나 있고(최근 jtbc, kbs 보도 참조), 또 그 외에도 강

상면 병산리에서 아주 가까운 교평리 일대에도 1500평에 가까운 차명 보유의혹 토지가 버젓이 존재하고, 또 서울 송파구에 대형아파트를 주요 피의자인 최은순씨가 여전히 차명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탈세죄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2) 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장모는 십원짜리 한 장 남에게 피해준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있는데, 그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책임자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되고, 수사 도중에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교체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 관계인인 최은순 장모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농지법 위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탈세죄 등을 모두 봐주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에 고발인은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반드시 신속하고, 철저히 재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 발표 3 - 민주당 여주양평위원회 최재관 위원장 : 원희룡 장관의 거짓말 ]



**거짓 1** 전면 백지화, 다음정부에서나 해라?



**원희룡장관을 공수처에 고발**

- 4년간 수십억의 정부예산이 들어갔다
- 그만두는 것도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 정당한 절차없이 노선변경은 직권남용이다
- 민주당이 사과하면 하겠다?
- 양평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다?
- 법무부장관의 직무유기다

## 거짓 2 예타노선을 민주당이 원해서 바꿨다



### 강하구간 IC설치만 희

#### 1. 강담회 개요

- 일 시 : 2021. 4. 28.
- 장 소 : 강하면사무소 회의실
- 내 용 : 지역현황 및 현안 논의
- 참 석 자 :

#### 2. 강담회 내용

- 논의 내용
  - 신속 주택 인공 가드등 설치 및 아스콘 포장 요청
  -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강하면 구간 IC 설치
  -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실무예영인 강하 자연환경 생태공원 조성 개발방안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2년도 사업비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운심리-항금리간 도로변 인도 설치
  - 왕창리-전수리간 강하중학교 도로변 가드등 설치
  - 강하면 노인회관이 노후되고 비좁으니, 이견 신속 설치
  - 2022년 군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한 주민자치센터 예산 반영 하여 주시기 바람.

## 거짓 3 양평고속도로, 양평에 IC가 없어서 지나가기만 한다?



### 양평에 IC 이미 3개 있다

- 양평 IC
- 두물머리 IC
- 남양평 IC

**거짓 4** 상하IC 만들려면 종점변경 필요하다? (L자)

종점을 그대로 두고 선형변경, 설계변경으로 가능하다



**거짓 5** 노선변경, 양평군이 먼저 제안했다?

양평군 8일만에 노선3개를 그렸다?



## 거짓 6 종점변경, 양평군이 먼저 제안했다?

### 양평군은 1안을 원했 고속도로 노선(안) 협의 의견 현황(양평군)

구분	제1안	제2안	제3안	비고
노선위치	김일JCT-북광주JCT-남종IC-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인근(IC신설)-양평JCT	김일JCT-북광주JCT-남종IC-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인근(IC신설)-양평JCT	김일JCT-북광주JCT-남종IC- 강하면00호선 연결(중점)-교량연결	''
변경사유	- 당초 노선 일부 조정 및 IC 신설 - 양평구간 남한강 이남, 이북 진출입로 미연결로 통행불편 - 국지도88호선 도로확장 예정(2027년)으로 연계도로 활성화	- 퇴촌지점부터 노선을 변경하여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부근에 JCT연결, 왕창리 부근 IC신설 - 양평군 남한강 이남, 이북 연결 및 IC신설로 통행불편 해소 - 국지도88호선 도로확장 예정(2027년)으로 연계도로 활성화	- 서울-양평 고속도로 중점부근을 00호선 국지도에 연결하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IC와 연결계되는 교량을 신설하여 IC 진출입을 가능토록 함 - 남한강 이남,이북 연결로 통행 활성화	''
기대효과	- 양평구간 IC신설로 수도권 접근성 강화 및 통행편의 제공 - 국지도 00호 연계로 교통량 분산 및 우회로 선택 가능 - 국도6호선 교통체증 완화 기대 및 중부내륙 고속도로 분산 - 양평군, 광주시 남한강 이남 지역 주민 통행편의 해소	- 양평구간 IC신설로 수도권 접근성 강화 및 통행편의 제공 - 국지도 00호 연계로 교통량 분산 및 우회로 선택 가능 - 국도6호선 교통체증 완화 기대 및 중부내륙 고속도로 분산 - 양평군, 광주시 남한강 이남 지역 주민 통행 불편 해소	- 국지도00호선 연결로 통행편의 제공 - 중부내륙고속도로 연결하는 교량신설로 IC 진출입 원활 - 양평군 강상,강하 지역주민 통행불편 해소	''
검토사항	당초(안) 최소 범위 연계 고려 <b>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 확보</b>	관여교통망 연계 타당성 고려 <b>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b>	지역 연계 도로망 구축 속전 고려 <b>교량신설 및 IC 연계 어려움</b>	''

## 거짓 7 예타는 큰 그림만 그리는 거다?

### 예타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일



-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그걸로 경제성 분석하는 게 예타
- 기획재정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B/C 분석을 통과를 못하면
- 정치인들이 아무리 요구하고 대통령이 요구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예타예요.
- 그만큼 예타는 이 사업을 추진할 거냐 말 거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

**거짓 8 예타이후에도 노선 바뀐 사례 많다?**

**[UPI단독]2010년 이후 예타 통과 고속도 중 서울-양평만 대폭 변경...백지화는 '0'**



- 10개 사업 중 7개 예타안과 타당성조사안 비교
- 7개 노선 길이 평균 0.6km ↓ vs 서울-양평 2km ↑
- 양평도 55% 변경도 이례적...전문가 "다른 도로"
- 원희룡 선언 현실화시 "첫 예타 통과 백지화 도로"
- 국토부 "강상면도 검토된 것...여건 되면 다시 추진"

**거짓 9 선변경, 양평군아닌 용역사가 먼저 제안?**

말바꾼 국토부 "강상면 증점 첫 제안, 양평군 아닌 설계회사"



서울양평고속도로 증점 변경 논란  
국토부, 말바꾼 의혹 조목조목 반박  
"대안노선이 경제성 입증되 않아"



국토부 10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증점 변경안 관련 토론회. 왼쪽부터 국토부 차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장, 국토부 차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장, 국토부 차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장

경계 많이 보는 기사

1. 마시미니 초점반영...  
...엔지니어에 일선 국  
사 원공함상 남달
2. 01년 1차 1차 1차  
...가장자 한이 인용  
버스 종료
3. 총괄 부지사 제안에  
...내위사는 계급권력  
상-일적 상황
4. 현방기 공적시상 전회  
...추출-장시하고-  
학-성결과?
5. 손오민 조복에 비출시  
...역사기록-...장술비  
...영여지



**국토부 지시없이 못바**  
**꿔** '중점 변경' 국토부 방침 없이 용역업체 설계 변경 못해

2024년 10월 26일 14:58:17 | 국토부

건설교통 전문가 "국토부 의견 수렴없이 노선 제안 불가능"  
노선 중 55% 변경했지만, 용역업체 "외압 별도 지시 없었다"  
원희룡, 대안 제안자 양평군→용역업체 번역이유 설명 없어



서울-양평고속도로 1차 증점 용역업체인 용역업체가 제시한 대안 노선(가운데)을 국토부 차관(왼쪽)이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차관(오른쪽)은 대안 노선(가운데)을 설명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1차 증점 용역업체가 제출한 대안 노선(가운데)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는 국토부의 방침이 있어야만 대안 노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거짓 노선변경, 문재인정부 용역사가 제안?

윤석열 인수위에서 용역회사



변경노선 최초제안 (22.5.19)

용역착수 50일만에?  
B/C분석도 없이 55% 변경

거짓 원희룡, 김선교와 통화한적 없다?

원희룡, 강상면으로 옮기자하니 김선교, 좋다



- 지난 6월 9일 양평군 동부지역 노인지도자 보수교육에 김선교 축사
- 김선교, 원희룡이 전화와서 강상면으로 옮기자고 해서 자기가 좋다고 했다
- 전 양평군 정동균군수 직접 들었다 확인

**거짓 12 원희룡 취임하고 3일동안 뭘 바꿨겠나?**

**원희룡, 자기는 모른다. 용역사가 했다?**



- 22. 3. 29 인수위시절 착수보고
- 22. 5. 16 국토부장관 취임
- 22. 5. 16 도로공사 보고
- 22. 5. 19 국토부 보고
- 23.5.8까지 16차례 노선변경 대책회의

**거짓 13 중부내륙에서 여주쪽 흡수하려 강상쪽으로 내려?**

**중부내륙 남여주에서 양평IC까지 차가 거의 없어**



-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출퇴근 하라고 만든 도로인가?

**거짓** 쪽 연결지점이 인구 많고, 교각을 세워야하고?  
14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설계변경, 선형 변경)



- 조선일보 애쓴다?
- 청계리 주민 770가구 1/3로 갈라진다?
- IC가 없는 고속도로다?
- 머리위에 40미터다리를 올리고 살아야 하나?
- 전원주택도 있다?

**거짓** 아가 안된다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면 국정농단?  
15

용역회사가 신인가?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도 없이
- 비용대비 경제성 분석(B/C)도 없이
- 단 48일만에 중점을 변경한 용역사를 믿어주자고???

**거짓 21안으로 가면 환경파괴가 일어난다?**

16

**원안으로 가면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양평은 다 상수원특별대책 권역이다**



- 수질보호를 위해 그동안 온갖 규제 다 받았다
- 수도권의 물이용부담금 받는다
- 다리보다 지하수에 영향을 주는 터널이 더 위험하다

**거짓 변경안으로 가도 140억만 더 든다?**

17

**도로는 2.2km 늘고 교량17개 늘고, 터널이 8개 늘어난다**



	여타안	대안
서울구간	하남시 - 양평군 양서면	하남시 - 양평군 강상면
연장, 차로수	27.0km, 왕복 4차로	29.0km, 왕복 4차로
총 사업비	1조 7,695억원	1조 8,661억원
출입시설	분기점 3개소(간월, 북광주, 양평), 나들목 3개소(상사원, 상산곡, 남중)	분기점 3개소(간월, 북광주, 양평), 나들목 4개소(상사원, 상산곡, 남중, 강해)
<b>교량</b>	<b>9개</b>	<b>26개</b>
<b>터널</b>	<b>12개</b>	<b>20개</b>

- 기재부 예타시행지침에
- 고속도로 1km 늘어나면 약 500억원씩 늘어나
- 터널 1km에 평균 360억원 늘어
- IC 하나에 평균 320억원 늘어

거짓 원안에는 IC가 없다?

18

원안에 IC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용역사가 고의로 안그렸다 (양평군1안 참조)



거짓 선산이라서 개발의도가 없다?

19

선산은 200미터 옆에 있다

대통령처가 17필지 그중 참고부지 3개, 접도구역에 산지전용은 어떻게 했는지?



선산까지 이어진 부채도로는 특혜도로?



▲ 서울의소리 취재팀이 18일 김건희 일가 선산을 찾아 발견한 김건희 일가 납골당. © 서울의소리

거짓 건희땅 거기 있는거 몰랐다?

원희룡, 정치생명 몇 개인가?



"(한준호 의원의)작년 국감 질의는 '양평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 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원희룡 장관이)'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한 것"

## [ 지정토론 2 - 임세은 경제평론가, 전 청와대 부대변인 - 서울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른바 ‘김건희 로’ 에 대한 과학적인 답변을 요구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 양평 강상면에 대한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투기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방식과 대응이 매우 수상합니다.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보통 특정 정보를 알고 나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내관련 사건이 이러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산 매입 이후 갑자기 고속도로가 휘는 획기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감탄과 동시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 선산 부지라 했던 윤석열 부부 일가의 땅이 투자 목적과 개발 의지가 마구 섞인 황금 땅덩이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제곱미터당 공시가가 170만원에 임박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3제곱미터 기준 500만원이 훌쩍 넘어 갑니다. 공시가가 그렇다면 현 시가는 얼마일까요?

이 땅은 농사 목적? 아니면 투자목적? 농사 목적이 아니라면 지목 변경이 있을 것이니, 당연히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국토부가 고속도로 계획안을 변경한 것이 정말 그 땅의 존재를 모르고 진행한 것인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대상 선정 그 자체만으로도 치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가적 사업이 느닷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거 변경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이 대통령 부부일가 땅이 아닌 그 누구의 땅이리도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 일가의 엄청난 부지가 이에 해당되며, 대통령실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 조차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갑자기 이 논란조차 불식하고자 모든 상환을 백지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쟁입니까? 이 사안은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 역대급 국정 농단 의혹을 제기할만큼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에 의거하여 마련한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십시오. 아니면 설명이라도 하십시오.

백지화에 대해 대통령과의 협의나 지시가 아닌 이상, 국토부 장관 위치에서 어떻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약을 독단적으로 백지화 선언하실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20억 넘는 국가 세금이 들어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버젓이 있는데도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해명을 요구 합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비용과 실익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 사업 계획에 대해 국민들께 정확히 납득시켜주십시오.

- 민생경제연구소장, 경제평론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



## [ 국정조사-특검 도입 촉구문 ]

국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특검을 도입하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를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 양평군, 보수언론들이 연일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국민과 양평군민들을 현혹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15년간 검토와 조율을 통해 확정된 고속도로 건설 노선을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토지 인근으로 갑자기 변경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이번 고속도로 노선변경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국토부를 통해 기획, 진행된 것이지만 국책사업을 하루아침에 변경하려는 시도는 국가 최고권력의 작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엄청난 특혜비리 사건을 국토부와 국회 간의 문제로 밀어버리고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특혜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성실히 해명하기는커녕 야당의 정치공세라는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이다가 백지화를 선언해버렸다.

그러나 각종 증거들과 증언들이 이어지고 특혜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높아가자 며칠 전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사업자료 완전공개라는 방식으로 백지화 선언 17일 만에 변경안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범죄와 비리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로 이목을 돌리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위협과 협박으로 책임을 모면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정치방식 그대로다.

차고 넘치는 증거들과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살아온 양평주민들이 두 눈을 버젓이 뜨고 있음에도 거짓말과 가짜뉴스, 정치공세로 대응하고 있는 윤석열정권과 국힘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명백한 특혜비리 사건의 완전한 진상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민 세금 1조 7000억 가량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하루아침에 변경하려는 그 힘의 실체를 백일하에 드러내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지다.

국민들은 묻는다.

정부와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누가 지시하였는가?

국회는 국민들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즉각 국정조사에 돌입하고 특검을 도입하여 그 진상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2023년 7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토론회 참가자 일동**